

주도업종 중심의 반등장세 예상

국내 증시,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국내 증시,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KOSPI의 경우 지난 4월 23일, KOSDAQ시장은 4월 21일을 고점으로 약 3주간의 조정세가 이어졌지만, 지난 주말을 고비로 하락폭이 둔화되는 모습이다. 유동성 축소 우려를 키웠던 글로벌 금리 급등세가 완화되고 있고, 실적 기대감을 위축시켰던 원화 강세, 유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이 투자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고점에서의 지지 기대감 여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4월 급등세 속에 돌파했던 직전고점 부근에서 하락폭이 둔화되거나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직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KOSPI는 지난해 7월 기록했던 2,080선에서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고, KOSDAQ지수는 지난 2008년 초 고점인 660선까지 가파른 가격조정 과정을 거친 이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KOSPI, 지난해 7월 고점 부근에서 하락폭 둔화



자료: MU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KOSDAQ, 2008년 초 고점 부근에서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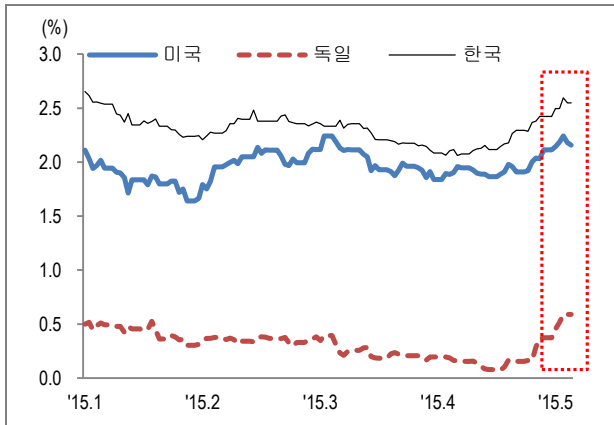
자료: MU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가격조정 요인들의 변동성 완화

금리, 환율, 유가 등의 변동성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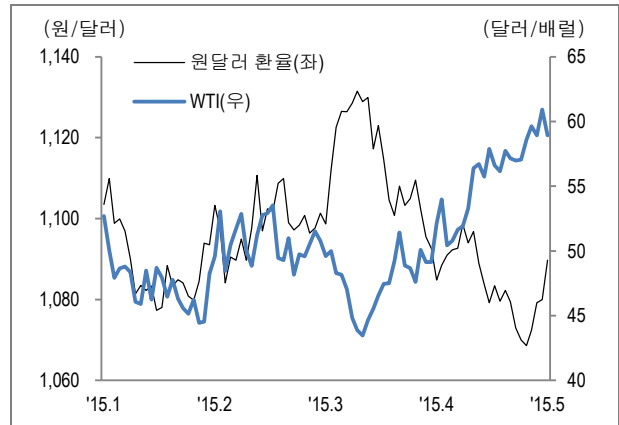
4월 말부터 국내 증시의 조정을 유도했던 요인들도 변동성이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 4월 21일 채권왕 빌 그로스의 독일 국채 매도 발언 이후 급등세를 보였던 글로벌 국채금리는 대체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실적에 비우호적이었던 매크로 변수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29일 1,070원을 하회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이 재차 상승세로 돌아서며 1,090원에 근접했고, 3월 중순부터 오름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6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WTI 기준)도 60달러 선에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이다.

글로벌 국채금리(10년) 급등세 주춤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원달러 환율과 WTI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사그라들진 않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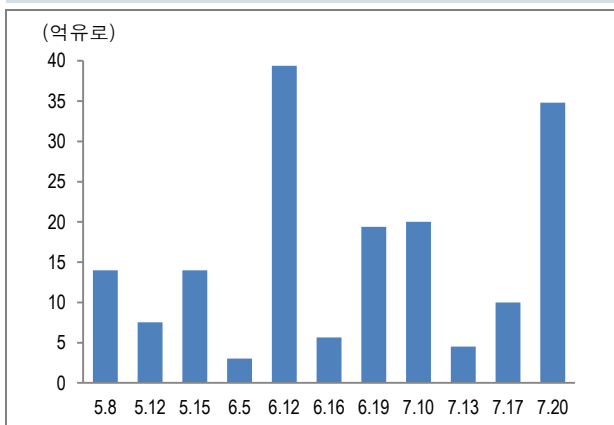
그리스 디폴트 우려 여전

그럼에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아직 진행형이다. 그리스의 채무협상과 유로존 선거가 그것인데, 우선 그리스의 채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그리스의 새로운 개혁안 제출 및 트로이카의 승인, 추가적인 구제금융(72억유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개혁안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이번주 12일부터 7월말까지 대규모 채무상환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1일 유로그룹회의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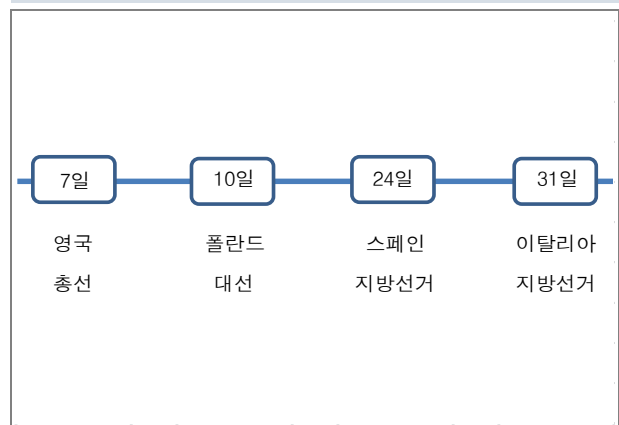
또한 7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총선을 시작으로 10일 폴란드 대선, 24일과 31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지방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다.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하며 EU 탈퇴(브렉시트)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파운드화가 2009년 1월 이후 최대폭인 2%대 급등세를 나타냈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향후 예정된 선거에서 유로화와 유럽통합에 반대하는 신생 정당들의 좌석 확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유럽발 정치적 불확실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까지 예정된 그리스의 채무상환 일정



자료: 보도자료,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5월 예정된 유럽의 선거 일정



자료: 보도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도업종의 리바운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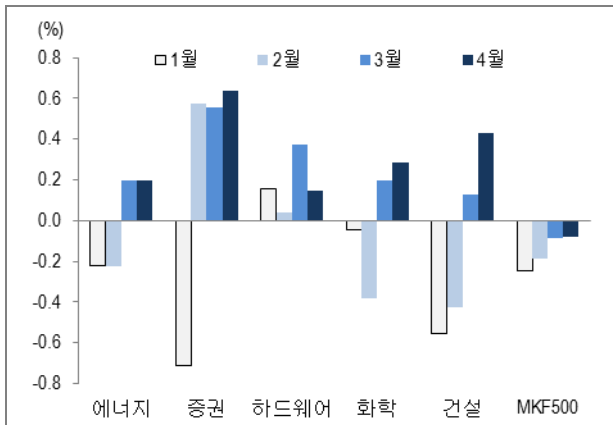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둬야

앞서 언급했던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다수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단기 저점 확인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증시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진입하는 시점에 있고, 최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확대시켰던 환율과 금리, 유가 등의 매크로 변수가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모멘텀 보유 업종에 대한 관심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주도업종의 리바운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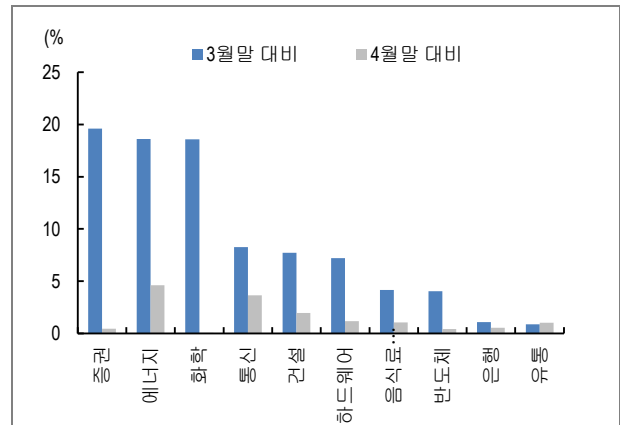
올해 들어 주도주로 부각된 에너지, 화학, 증권, 건설, IT하드웨어 업종의 경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가파른 조정에 대한 리바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4월말 기준 이익수정비율(EPS추정치 상향 - 하향종목 수/전체 추정종목 수)이 모두 (+)권을 유지하고 있어 이익가시성 측면에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3월말과 4월말대비 12개월 Forward EPS 추정치가 동시에 개선되고 있는 10개 업종 내에 모두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변동성 확대 과정에서 다시 한번 관심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도업종의 이익수정비율 개선세 뚜렷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

업종별 12개월 Forward EPS 추정치 변화율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Portfolio솔루션부